

#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로마 8,25)

- 믿음 희망 사랑 십자가의 길

심홍보 신부

#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로마 8,25)

- 믿음 희망 사랑 십자가의 길

머리말	3
십자가의 길 14처	4
십자가의 길 0 가톨릭 기도서	6
십자가의 길 1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로마 8,25)	13
십자가의 길 2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4)	25
십자가의 길 3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1코린 13,4)	36
십자가의 길 4 “약한 모습으로 못박히셨지만”(2코린 13,4)	48
십자가의 길 5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갈라 6,14)	61

##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며

지난 2014년 사순절에는 성가정을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재의 수요일 다음 금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가톨릭 기도서의 십자가의 길을 바쳤고, 사순 제1주간에서 사순 제5주간 금요일까지,

첫 주간은 ‘일반 개인 차원의 주님을 향한 영성의 길목에서’,

둘째 주간은 ‘부모의 은덕을 기리며’,

셋째 주간은 ‘부부의 정을 기리며’,

넷째 주간은 ‘자녀의 꿈을 이루며’,

다섯째 주간은 ‘교회 공동체 차원의 사도직 활동의 여정에서’라는 주제로 성가정 십자가의 길을 써서 바쳤습니다.

사순 시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2015년에 바칠 십자가의 길의 주제를 몇 개월 동안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10월 교구 사제피정에 들어가 기도를 하면서 불현듯 이번에는 사 복음과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마르코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둘째 주간은 ‘교회를 주제로 묘사한 마태오 복음의 하늘 나라’를,

셋째 주간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루카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넷째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요한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다섯째 주간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역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각 복음에 그려진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을 마치면서, 자연스레 바오로 사도의 서간으로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신 바오로 사도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를 주님과 교회로 이끌어줍니다.

첫 주간은 ‘로마서의 희망 십자가의 길’을,

둘째 주간은 ‘코린토 전서의 믿음 십자가의 길’을,

셋째 주간은 ‘코린토 전서의 사랑 십자가의 길’을,

넷째 주간은 ‘코린토 후서의 위로 십자가의 길’을,

다섯째 주간은 ‘갈라티아서의 찬미와 영광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19년 사순절의 문턱에서  
수색 예수성심 성당 주임사제  
심홍보 베드로 신부

##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목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제 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목상합시다.**

**제 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제 4처 예수님께서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목상합시다.**

**제 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목상합시다.**

**제 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목상합시다.**

**제 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제 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목상합시다.**

**제 9처 예수님께서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제10처 예수님께서서 옷 벗김 당하심을 목상합시다.**

**제11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목상합시다.**

**제1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목상합시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목상합시다.**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목상합시다.**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십자가의 길

- 가톨릭 기도서 -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이 극심한 모욕과 사형선고를 받으셨으니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벌에서  
저희를 구원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으니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에 눌러 넘어지시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

괴로운 십자가의 길에서 서로 만나시어  
사무치는 아픔을 겪으셨으니  
저희 마음에 사랑을 복돋아 주시어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데에  
장애 되는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시몬이 주님을 도와 십자가를 졌으니  
저희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지고 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나쁜 무리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을 업신여기며 모욕하였듯이  
저희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오니  
통회의 눈물로  
주님의 얼굴을 씻어드리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두 번째 넘어지시는 고욕을 당하셨으니  
주님을 한결같이 섬기지 못하고  
다시 죄에 떨어져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다시는 세속과 육신의 간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 죄로 상처를 받으시고  
온몸이 헤어지셨으니  
저희에게 풍부한 은총을 내리시어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며  
주님의 품을 찾아 들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저희 죄에 눌리시어

세 번이나 무참히 넘어지셨으니

그 수난의 공로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어

저희가 이미 지은 죄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병사들이 난폭하게 주님의 옷을 벗길 때에

살이 묻어나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죄수로 군중 앞에 서시는 모욕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달리셨으니

저희도 주님과 같이

몸과 마음을 희생제물로 봉헌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으니

저희도 십자가에 못박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구세주 예수님,

혹시라도 영원히 주님을 떠날 불행이 저희에게 닥칠양이면

차라리 지금 주님과 함께 죽는 행복을 내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품에 안으신

성모님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성모님 품안에서

효성스러운 자녀로 살다가

마침내 그 품안에서 죽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돌무덤에 묻히신 구세주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사랑의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로마 8,25)

- 로마서의 희망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로마 1,21; 2,6-7)  
우리는 지금  
물질적인 풍요와 현세적인 안정에 눈이 멀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저희의 외면과 배반으로 사형선고를 받으신 주님,  
그간 저희의 보잘것없는 선행을 크게 보시어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로마 5,3-5)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어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주님과 교회와 세상에 봉사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입신양명과 먹고 사는 일에 주력함으로써

주님께 십자가를 안겨드렸습니다.

저희의 배반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주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로마 5,8-9)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담보삼아

회개보다는 우리의 탐욕만 늘려

주님을 지치고 진이 빠지게 하였습니다.

저희의 탐욕으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신 주님,

주님의 피로 의롭게 해주시는 사랑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로마 4,18.20.22)

우리는 선행의 결과가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자

주님과 복음 말씀에 희망을 두지 않았습시다.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아들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않으신 성모님께 의지하여 청하오니

주님,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해주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로마 5,15.18)

저희는 주님 앞에 이렇다 하게 드러낼 만한 공과 덕이 없사오나  
언제 행했는지도 모를 눈곱만한 선행과  
교회의 믿음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주님,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로마 5,20-21)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선행이 빛나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살아 있음은

주님의 은총 때문이옵고 믿고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도 회개하여

주님의 상처 난 마음을 닦아드리게 해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에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로마 6,15.19.27)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지도

느슨해진 양심을 되돌리지도 못한 채

그저 별만 안 받기를 기대하며

십자가의 무게만 더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악으로 두 번째 넘어지신 주님,  
영생으로 이끄시는 성령께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모든 계명은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로마 13,8-10)

주님은 우리 죄로 주님께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 죄는 되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 안쓰럽게 바라봅니다.

우리를 몸소 사랑하셔서

우리 죄악을 뒤집어쓰신 주님,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로마 7,15.17.24)

주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라고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안에서 탐욕을 추구하고

죄악과 손잡으려는 경향을 막아주시고

부정적인 애착을 걷어주시어

주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오니

저희의 죄악으로 세 번째 넘어지신 예수님,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18.28)  
 우리가 힘겨워지면 질수록  
 우리가 나락에 떨어지면 질수록  
 아이러니하게 더욱더 짙은 희망을 걸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주시리라는  
 믿음과 희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희망의 첫걸음은  
 주님의 모욕이네요.  
 우리를 위해 온갖 모욕을 감내하시는  
 주님 사랑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3.39)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늘어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가실 줄 모르는가 봅니다.  
우리 희망의 두 번째 걸음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  
그 사랑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로마 5.8.10)  
결국에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정작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  
가슴이 멍하기만 합니다.  
우리를 결국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상에서 새생명을 내어주고 가시는  
주님 사랑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로마 14,8-9)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건만

막상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려니

마음이 아프다 못해 찢어집니다.

하지만 얼굴을 들 수도 감히 쳐다보기도

부끄럽고 부당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께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로마 8,25.26)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무덤에 묻고 나니

그야말로 희망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런 희망조차 둘 수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것이 희망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희망이기에

우리는 볼 수도 없는 것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을

성령께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로마 12,2)

예수님은 가셔서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도 기대조차 못 했지만  
하느님 사랑의 구원계획은 중단없이 다가옵니다.  
동트는 새벽처럼!  
십자가에서 끝날 것 같은  
죽으면, 아니 죽이면 끝날 것 같았던  
주님의 구원계획은 오히려 빛이 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1코린 11,24)

- 코린토 전서의 믿음 십자가의 길 -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코린 1,23.25)**

우리는 키가 크고 잘 생기고 돈이 많은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크게 도와주며 은공을 베푼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도 아니고 권력가도 아니고 큰 은혜를 베풀지도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구세주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형선고를 받으십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참여시켜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1코린 2,9.16)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마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도 평평거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고도 줄과 뺨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착하지 않고도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 탐욕과 원망의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참여시켜 주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1코린 3,16)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라는  
예수님의 권고는 외면당하고,  
자신이 갖고 싶고, 얻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눈에 보이는 재물과 자리에 집착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달라는 사람들의 등쌀에  
예수님께서서는 더는 어찌하지 못하고  
기력이 쇠하셔서 쓰러지십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참여시켜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4처 예수님께서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저마다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1코린 4,5)

사람들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외면당하고 고소당하고 저주받아 갈가리 찢어진

예수님의 마음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모님께서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머니는 예수님을 이해하십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위로하십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지지하십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숨겨진 의미와

구원의 역설적인 신비를 아시고 따르십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참여시켜 주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1코린 6,20)

재판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이렇다 할 심리와 논쟁도 없이

정치 사회적 야합과

군중심리로 내쳐진 예수님.

그 아픈 마음과 지친 기력으로 비틀거리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그나마 시몬이 참여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참여시켜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1코린 9,19)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거창하고 유별나지 않아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해도  
남모르게 소리소문없이  
주님 사랑의 복음을 간직하고  
나름 자신의 삶에서 실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위로해 드리는 베로니카요,  
주님께 힘을 실어드리는 밀알입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참여시켜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1코린 10,13)  
세상은 험난해 보입니다.  
악마는 장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복음화는 너무나 미미하여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언제 겨자씨가 자라날지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바위에 달걀 던지기만 같아 보이던 복음화의 열매도  
낙숫물에 패는 바위 구멍처럼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참여시켜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1코린 10,23.31)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 패망의 굴을 파지만

이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 사랑의 복음에 눈 돌리게 하시고

복음 말씀에 맞들이고

복음 말씀을 실현하며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 저희도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참여시켜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1코린 11,11)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땅처럼

복음을 들으면서도 곧 놓쳐버리고

복음 때문에 환난이 오면 바로 포기해 버리고

복음을 간직하지만 여러 가지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으로 잊어버려

예수님을 거둬 넘어지시게 하고 맙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저희도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참여시켜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1코린 11,16-17)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루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아침은 새로운 하루를 선사해주신

주님 찬미의 노래가 아니라  
번잡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낮은 용서와 사랑과 평화를 향한  
복음의 실현이 아니라  
아귀다툼과도 같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저녁은 은총의 하루를 내려주신  
주님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휴식과 향락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발가벗겨진 우리의 민낯입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참여시켜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3-24)  
삶에 지치고 현실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주님은 생명의 빵을 주십니다.  
우리의 죽을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주님 자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길이 깊이 기억하며  
주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참여시켜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5)

삶의 굴레에 들어가면 갈수록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주님은 피를 흘리십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 죄악을 씻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께서 내려주신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의 남은 죄를 씻어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참여시켜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1코린 11,26)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수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마침내 주님의 생명을 담보로 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구원의 희생제사를 기념하며  
우리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며  
우리 죄악에 죽고 주님 사랑으로 새로 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참여시켜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1코린 15,42-44)

동터오는 새벽을 막을 수 없듯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사랑의 복음이 죽어가긴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살리립니다.

오늘 안 되지만 내일 될 수 있음을 기다리며

오늘 못 하지만 내일 하기를 다짐하며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구원하시려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날까지.  
주님, 저희도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참여시켜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1코린 15,51.57)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할 부활의 영광을 희망합니다.

우리의 공과 덕으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은총을

주 하느님의 섭리와 안배로 오늘 여기서 얻어가고 있으니

부활하여 다시 오실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참여시켜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1코린 13,4)

- 코린토 전서의 사랑 십자가의 길 -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목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1코린 13,4)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 변화되도록 기대하시며  
오랜 세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멋대로 하여도  
주님께서서는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다림의 보람도 없이  
저희는 복음 말씀대로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치워버리고자 합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1코린 13,4)

우리가 우리 짓값을 치러도 모자라지 않을 텐데

주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호령을 내리셔도

우리는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을 처지인데도

주님께서서는 마치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라도 하듯이

친절하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몸소 지십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1코린 13,4)

주님은 우리가 탐욕에 휩싸여 있을 때도

아무런 탓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악에 쏠릴 때도 침묵하십니다.

질투가 많은 하느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과 현세에 대한 집착과 미련 속에 헤맬 때도  
섭섭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악마를 시기하고 질투로 화를 내실 만도 한데  
사랑이신 주님은 그저 바라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면과 저버림과 배반의 처사에  
주님은 그만 쓰러지시고 맙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1코린 13,4)

성모님은 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다.  
아들이 군중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한 번쯤 내 아들이라고 뽐내며  
아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한 번쯤 교만을 부리실 만도 한데  
어머니는 겸손하게 지지해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갖 시기와 질투로  
사악하게 대들고 모함할 때도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한  
주 하느님의 섭리와 안배를 믿고 희망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성모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십니다.  
그런 어머니의 믿음을 아시고  
그런 어머니의 희망을 새기며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체득한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1코린 13,5)  
주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면서도  
단 한 번 힘겹다고,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으십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싫은 소리나 불평과 불만은커녕  
하소연마저 한마디 없으십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1코린 13,5)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아쉬우면

도와달라 하고

내 앞길을 펼쳐나가기 위해

요청하기 바쁘는데

주님은 현세적인 것은 아무것도 청하지 않으십니다.

머무실 집도, 호령할 자리도 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가 복음의 빛 안으로 걸어 나가

화목하고 평안하게 살며

마침내 구원되기만을 바라십니다.

주님, 우리의 갑 없고 어설픈 위로를 허락하시고

죄인인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1코린 13,5)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막히고

하려던 일이 벽에 부딪혀 실패할 때

다른 이들을 원망하고

주위환경을 탓하곤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서 일러주시는 복음의 빛을 걷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성 한번 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께쌌해하지도 않으시고  
망하라고 저주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안쓰럽고 안타까워하실뿐입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를 자비로이 굶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습니다.”**(1코린 13,6)

우리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잘 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  
무엇이 잘못되든  
결과만 좋으면 된 것이라고 안위합니다.  
내가 피해 안 입고  
나에게 도움만 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주님은 불의로 인하여 통곡하는 이들과  
소외되고 외면당하여 따돌림당하는 이들과  
이용당하고 착취당하여 노예처럼 부려지고  
주변으로 내몰려 이등의 삶을 살 처지에 놓여서  
마치 운명처럼 실패한 삶을 살기라도 해야 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둥켜안으시고 아파하십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를 자비로이 굶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랑은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1코린 13,6)

우리는 일등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좋은 자리에 앉아

풍요롭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탐욕과 집착의 사다리를 타려고

너도 나도 무한경쟁의 전쟁에 뛰어들지만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스러져갑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낙오되고 사장되는 이들과 함께

주님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등하기보다 살아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 화목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기보다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줍니다.”(1코린 13,7)

우리는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기 바쁘고

어떻게든 남의 약점을 까발려

도태시키고 밀어내기가 바쁩니다.

또 그래야만 내가 산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옷 벗김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자리에는

나 혼자만 외롭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밟고 올라서기보다 함께 가도록 이끄십니다.

주님은 잘못을 꼬집기보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쓰러뜨려 이겨 내기보다 부둥켜안아 주십니다.

주님은 끌어주고, 함께하고, 밀어주십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1코린 13,7)

우리는 혹시라도 속아서 손해 볼까 봐

의심에 의심을 거듭합니다.

우리는 어디 노는 재물이나 눈먼 자리가 없나

못 먹으면 바보라고 여겨 여기저기 찢러 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파고 또 파봅니다.

우리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인한 죄악으로

주님은 못에 박혀 역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멍그러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탐욕을 못 본 체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눈감아주십니다.  
우리를 벌하게 되면 우리가 낙담할까 봐  
좌절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까 봐  
회개하여 새롭게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십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1코린 13,7)  
주님은 우리의 배반과 원망과 저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회개를 기대하시기는커녕  
이해조차 받으실 수 없는 처지에 놓이십니다.  
그렇게 실패와 좌절의 한없는 절망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  
칠혹 같은 어둠 속에 갇혀 버리는 듯하셔도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으십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목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코린 13,7)

실낱같은 희망의 촛불은 꺼지고  
 복음의 빛은 사라지며  
 생명은 시들고 사그라져  
 어둠만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주님께서 내려오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죄악에 갇혀서 헤매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주님 생명을 바치시기 위함이었으니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지혜를  
 주 하느님 구원의 신비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주님, 죄인인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목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1코린 13,8)

보이지 않기에 부정당하고  
 잡히지 않기에 외면당하고  
 느껴지지 않기에 거부당하며  
 이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에 짓밟혀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악마의 획책으로 제거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며 구세주이시지만  
현세의 권력과 부귀의 이해관계에 전혀 속하지 않기에  
외면하면 그만이고 눈감으면 무의미하므로  
이성과 양심의 느슨함과  
현세적인 이익과 안일이라는 허위와 허상이  
한계와 죽음이라는 악마의 손을 들어주고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무덤에 묻히지만  
가릴래야 가릴 수 없는 빛처럼  
막는다고 막을 수 없는 연기처럼  
여명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1코린 13,12)**

주님은 악마가 뿌려놓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일어나십니다.

주 하느님께서서는 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진리와 정의와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깨달은듯하면서도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평화로운듯하면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갈등 앞에서

행복한듯하면서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기 앞에서

기뻐하면서도 언제 슬퍼질지 모르는 순간 앞에서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확고히 믿으면서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악의 세력에 휘둘리고  
사랑하면서도 손익계산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현세의 유혹과 풍랑 속에서 가랑잎처럼 흔들리는 저희를  
마지막 날 현세와 물질의 한계인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품안에서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소서.  
주님, 죄인인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약한 모습으로 못박히셨지만

(2코린 13,4)

- 코린토 후서의 위로 십자가의 길 -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2코린 1,4)  
예수님은 환난을 겪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지만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핑계와 자기주장만 내세웁니다.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예수님은 세상사를 잘 몰라서 그런다고  
세상을 살려면 적당히  
악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내쳐지십니다.  
오늘도 세상과 손잡지 못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도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과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2코린 1,5)

윗사람에게 잘 보이지 못해서

적절히 상납하지 못해서

일방적인 희생 강요에 응하지 못해서

적당히 눈감아주지 못해서

외톨이가 되고

부적응자가 되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납니다.

주님의 위로만을 그리며 외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2코린 1,6)

저희가 사는 세상은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악마가 지배하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매일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고  
부정과 불의 앞에 고개 숙여야 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연출하며  
아귀다툼 속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정말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누구를 구하시려고 저희를 대신

이렇게 힘겹게 살도록 하시나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듯이  
위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2코린 1,7)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의 수고와 고난을 다 이해하시고  
아들이 겪는 환난이 부당하고 억울하다가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바라십니다.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갖가지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고 감싸 안아주십니다.  
어머니는 저며오는 가슴을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아픔은 가리신 채 자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음에는 께찮을 거라고  
다음에는 잘 풀릴 거라고  
어머니는 오늘 자녀의 실패와 불행을  
내일의 희망으로 견디어 내라 하십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2코린 1,22)  
가끔은 저희가 버림받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디서인지 모르게  
누구인지는 모르게  
묵묵히 저희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서서 응원해주지는 않지만  
누군가 변호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만 설치는 곳이 아닌가 봅니다.  
때로는 천사처럼,  
때로는 성령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고 감싸주며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나 멸망할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2코린 2,15)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서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죄만 짓고 산다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펼쳐주신 세상에서 살며  
살아있으므로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있으므로 형제들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앞서지만  
주님께 감사의 정을 올려드리면서 삽니다.  
주님 저희의 부끄러운 위로를 허락하소서.  
저희 마음속에서 간헐적으로 피어오르는  
소박하고 맑은 향기를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의 추천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2코린 3,2.5)

제가 오늘 어둠 속에서 헤매지만

주님께서 돌봐주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부딪히고 쓰러지고 넘어져 구르지만

주님께서 저를 구해주실 것을 희망하기에 살아갑니다.

비록 오늘 비틀거리고 불안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커다란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바라기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공과 덕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한한 사랑과 안배로

우리를 대신해 희생하시면서

구원의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2코린 4,16.18)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그나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섭사리 드러나지 않는  
 주님의 섭리와 안배에 의지하며,  
 오늘의 실패와 한계 앞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히 여기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2코린 5,21)  
 저희가 허공만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영동한 이상만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허망한 꿈을 꾸는 것입니까?  
 저희는 험한 마음과 죄어오는 심장을 부동켜안고

주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사장되고 밀려나는  
이 시대의 가련한 영혼들을 굶어보소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쓸데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오늘의 이 사회의 냉엄한 칼바람을 잠재워주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2코린 6,2)

낙오자, 실패자로 낙인찍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며  
사회에서나 집안에서나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해

갈가리 찢겨진 영혼

자식들 장가보내고 시집보내며

이러저러한 집안 대소사와

갖은 병고와 우환에

빛만 그득해지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 구걸하다시피 내몰려

구차하게 연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솔직한 해명, 그 의분, 그 두려움, 그 그리움,  
그 열정, 그 징계도 불러일으켰습니다.”(2코린 7,10.11)

나이 들어 기력조차 없어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린 세상에서

노쇠한 몸과 마음이

홀로 남은 외로움에 골이 깊어 갑니다.

젊은 날 잠시나마 누렸던

꿈과 낙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온기도 없는 쪽방에서 웃음과 미소를 뒤로 한 채

날날이 드러난 빈곤의 굴레 속에 빠져서

쓸쓸하고 처량하게 하루를 고달파하며

무참히 내던져진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지난날의 실수와 죄악을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으로 위안해주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2코린 8,9)

저는 늙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병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언제 다시 걸을 날을 기대하지도 못한 채

저도 모르게 산소 호스를 코에 꽂고

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이가 내일은 또 저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살아도 축복입니까?

삶이 원망스러워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문득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무런 아쉬움이 없으신 분이

어느 한 것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은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하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십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사랑하렵니다.”(2코린 11,30)

아무도 슬퍼하지 않지만,

주님은 웃으며 반겨주십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만,

주님은 기꺼이 다가오십니다.

아무도 기억조차 안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숨이 끊어져 버렸지만,

주님의 포근하고 안락한 품 안에서 깨어납니다.

아무에게도 가치 없이 여겨지던 생명이

주님께는 귀하디귀한 보물입니다.

무지렁이요 천덕꾸러기였던 생명이

주님 품 안에서는 축복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2코린 12,9)

주님의 뒤를 이어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오로는 몸이 몹시 아픕니다.

바오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하소연하지만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편함과 실패 때문에  
주님께 하소연하는 저희를 굽어보소서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저희의 부족함으로  
저희의 죄악으로  
주님의 사업을 그르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저희에게 내리시는 은총으로  
저희를 통해 주님 구원의 영광을  
더 널리 더 높이 밝히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 계십니다.”**(2코린 13.4)

부활하시는 주님을 뵈오며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차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며

마치 우리의 어둡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마치 가슴 한구석에 멍처럼 맺혀있던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어지는 듯하옵니다.

약하여 짓밟으면 그만인 것처럼 보였건만

그렇게 사람들의 욕심처럼 끝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피어납니다.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갈라 6,14)

- 갈라티아서의 찬미와 영광 십자가의 길 -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목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갈라 1,3)**

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온갖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저희를 이 세상에 은총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저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가족과 인류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과 축복을

성령의 빛으로 깨닫게 하시나이다.

저희를 내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지금의 이 악한 세상에서 구해 내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갈라 1,4)  
노심초사.

세상에 사는 우리를 향한 주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혹여 쓰러지거나 멩들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까!

심지어는 죄와 악의 노예가 되어

고단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주 하느님은 죄악의 굴레에서 해매는 우리를 위해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대신 뒤집어쓰시고

우리에게 주님 생명을 내주시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저희를 내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갈라 1,6)

과거의 인간들이 죄악에 쉽게 물들었듯이  
우리도 주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축복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많고, 더 좋으며, 더 높은 것을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얻고자  
죄와 악의 유혹과 너무나 쉽게 손잡습니다.  
저희의 죄악으로 스러지시는 주 예수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를 내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갈라 1,10)

아드님이 큰일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수고와 고난을 겪으셔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머니이시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현세에서 모함을 당해 저버림을 당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버겁기만 합니다.

그래도 그 결말을 믿고 바라시는  
성모님의 기도와 기대가 우리를 살립니다.  
저희를 내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갈라 1,15-16)

시몬은 준비되지 않았습시다.

시몬은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그 역할을 맡을지 전혀 몰랐습시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초대와 주어짐에

그냥 그 소명을 받아들였고

오늘 우리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수난의 잔을 받아마시고

주님 수난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에 응답하게 하소서.

저희를 내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친교의 표시로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이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갈라 2,9)

남이 보기에 좋은 일도 아니고

칭찬받을만한 일도 아니며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데

베로니카 성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수난을 위로하십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눈길이 무서웠을 텐데,

어딘지 모르게 꺼려했을 텐데

베로니카는 연민의 정이 앞서

예수님의 얼굴에 수건을 가져다 댁니다.

예수님의 수난으로 일그러진 얼굴과

그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땀을

베로니카는 받아냅니다.

주님, 세상의 죄악으로 수난당하는

오늘의 아픔들을 우리가 받아내게 해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감싸 안게 해 주소서.

저희를 내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족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민족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갈라 2,14)

이래도 되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지난번에도 이렇게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이 수준에서 그냥 넘어가겠지!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와 죄악

악의 없이 저지르는 부주의한 습관이

번수와 도를 넘나들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품위에서 벗어나게 하고

느슨한 양심의 세계에 빠져들게 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남용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자기합리화와 이기적 자기보호 안에서

탐욕과 타협과 협잡의 만용으로

허송세월 속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내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라 2,20)  
가시는 길마저 주님은 우리를 안쓰러워하십니다.  
가시는 길에서마저 저희는 주님의 짐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결심처럼  
주님 십자가의 무게를 줄여드리기는커녕  
고의는 아니면서도 예기치 않게  
주님께 근심과 부담만 안겨드립니다.  
조급하여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여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며  
내 자존심과 내 마음만을 챙기며  
굳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소서.  
형제들을 조금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좁디좁은 우리 웅졸한 가슴을 불쌍히 보아주소서.  
주님께 청원만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의 부당하고 가련한 처지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소서.  
저희를 내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호렷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갈라 3,1.2)

주님은 전 인류와

온 세상 피조물을 바라보시지만

저희는 저희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지만

저희는 저와 제 가족의 안위만을 챙기며

주님 십자가의 수량만 늘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 희생제사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 구원되었음을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도 주님은 온 세상의 아픔과 어둠으로 수난당하고 계시는데도

내 피붙이와 내 지인, 내 그룹이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밀어내며, 단죄의 못질마저 휘둘러

세상의 어둠을 깊게 하고 세상의 아픔을 심화하며

주님의 마음을 졸이고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가련히 보시고 내치지 마소서.

저희를 내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어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따름입니다.”(갈라 3,11-12)

저희도 나름 노력합니다.

미사도 매일 드리려 하고

삼종기도와 아침, 저녁기도도 때맞춰 드리고

복음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키고

교회 계명을 하나라도 더 채우고

구역반 모임이나 단체 등

교회 모임에 하나라도 더 참여하고

영성 강의와 신앙공부도 많이 하고

교무금과 헌금도 착실히 봉헌하고

감사 헌금과 기부금도 성심껏 냅니다.

봉사활동도 틈나는 대로 나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는

제가 노력하는 만큼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노고와 희생으로

세상의 죄악을 줄여드리고

주님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해 드리기는

아직 이른가 봅니다.

저희를 내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갈라 3,26-27)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악에서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상 희생제사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고

세례성사를 통해

주님 사랑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으며

우리 과거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돌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저희를 내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갈라 4,19)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아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준 원죄와

우리가 지은 본죄를 다 씻고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 과거 죄악의 습관에 젖어 죄를 짓곤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다시 또 죄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몸으로 죄악을 지을 때  
 주님은 마음 깊이 아파하시면서도  
 그 즉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마치 못 보기라도 한듯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실수와 죄악을 너그러이 보아주시는  
 주님께 돌아가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넘어져 부서지고 망가져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도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주님께 돌아가렵니다.  
 저희를 내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갈라 5,1)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으며

고해성사를 본 후, 다시는 죄짓지 않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를 위해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인내하심에  
소박하고 담담하게 보답하는 의미로  
내가 사는 가정과 사회와 동네에서  
주님 말씀을 하나씩 실현함으로써  
마침내 하늘나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견진성사를 통해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키워  
주님의 굳건한 사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내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갈라 5,22.25)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읽고 또 읽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조금씩 깨우쳐지고

가슴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땀을 시작하고  
가슴 속에서 솟구쳐 나오려고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말로 나오기 시작하며 복음을 전하고  
몸으로 실현하기 시작하며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죄악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서  
잘 깨닫고 적용하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주시어  
우리가 주님의 빛 안으로 걸어 나가  
마침내 이루도록 해 주십니다.  
저희를 내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갈라 6,14)

사도 성 바오로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청하지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미래에만 기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소명도  
잘 따르고 채우기를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저희도 세상의 죄와 악을 제거하고  
탐욕과 경쟁에서 벗어나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채워주는 일을 잊지 않으며  
기꺼이 주님 구원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렵니다.  
저희를 내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